

간협, 북유럽간호사연맹 5개국 만나 ... 간호 학술 및 문화 교류 논의

대한간호협회는 북유럽간호사연맹(Nordic Nurses Federation) 5개국 간호협회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국제간호협회(ICN) 대표자회의 기간 중인 6월 25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졌다.

이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5개국 간호협회 회장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르웨이간호협회 엘리 군힐 뷔(Eli Guhild By) 회장, 덴마크간호협회 그레이드 크리스텐슨(Grete Christensen) 회장, 스웨덴간호협회 씨니바 리베이로(Sineva Ribeiro) 회장, 핀란드간호협회 니나 하흐펠라(Nina Hahtela) 회장, 아이슬란드간호협회 굿보르그 팔스도티르(Guðbjörg Pálsdóttir)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김영경 제2부회장이 참석했다. ICN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회장과 신성례 제3부회장, 카렌 비로(Karen Bjoro) 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정부가 수교한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를 계기로 북유럽간호사연맹 회원국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학술 및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첫 물꼬를 트는 자리가 오늘 마련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고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했을 때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난 자리에 초청된 게르트 셴 간호사. 게르트 셴 간호사는 노르웨이 파견한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쉬'에서 활약했다. <사진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탁월한 추진력과 열정을 가졌다"면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이야기에 공감하

며, ICN은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유럽간호사연맹과 대한간호협회가 교류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의 만남과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노르웨이간호협회는 "6·25전쟁 때 노르웨이가 파견한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쉬'에서 활약했던 게르트 셴(Gerd Semb) 간호사가 100세의 나이로 오슬로에서 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2일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했을 때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난 자리에 게르트 셴 간호사가 초청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노르웨이간호협회장도 함께 참석했으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한국, 내년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개최

3국 간호협회 대표들 모여 논의



한·중·일 리더스 미팅이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국제간호협회(ICN) 대표자회의에 앞서 3개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0년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리더스 미팅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후쿠이 토시코(Fukui Toshiko) 일본간호협회장, 우 신주안(Wu Xinjuan) 중국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제2부회장 등 각국 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한·중·일 간호협회 대표들이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면서 "오늘 회의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간호학술대회의 일정과

주제,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인만큼 매우 의미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3국 간호사들이 간호의 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팅에서는 간호학술대회를 2020년 11월 4~6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의 간호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 아래 간호가 건강, 젠더, 경제적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협, 미국간호교육연맹과 교류

간호교육 발전 협력방안 논의



대한간호협회가 미국간호교육연맹(NLN : National League for Nursing)과 교류하는 자리를 6월 30일 가졌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회(ICN) 학술대회에 참석한 두 기관의 임원들이 시간을 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과 김영경 제2부회장, 탁영란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미국간호교육연맹에서는 비버리 말론(Beverly Malone) 대표와 프로그램 총괄이사, 법률담당이사, 교육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미팅은 한국의 임상에서 신입간호사와 간호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시뮬레이션 랩을 운영하는 교육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미국간호교육연맹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바란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계속 교류하며 간호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후보추천 지지 약속



닐싱 나우 나이절 크리슈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둘째)과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왼쪽에서 둘째)가 만나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테드로스 사무총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신성례 국제간호협회(ICN) 제3부회장.



ICN 학술대회 현장에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방문해 세계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과 ICN 및 닐싱 나우 이사진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간호협회 이사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한복차림으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부스를 지키며 노벨평화상 후보추천 지지서명을 받는 데 힘을 보탰다.



세계 간호사들이 연구결과 포스터 발표를 통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했다. 가운데 사진은 태블릿 PC를 통해 e-포스터를 열람하고 있는 모습.



ICN은 올해 120주년을 맞아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을 선보였다.

주요 간호이슈에 대해 강연자와 간호사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책카페가 마련됐다.

